

광주 빛고을창업스테이션 30개사 입주

‘아이디어가 사업으로’…투자사·창업 지원기관 입주 문의도 잇따라

광주시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역 인근에 설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지(STA·G)’에 창업 기관과 지원 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지’에 창업 기업 29곳과 지원 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맞벌이부부 찾아가 고충 해결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운영**

광주시가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한다.

광주여기장양립지원본부는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은 ‘정리코칭’과 ‘심리코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정리코칭’은 집안 정리 등 전문가가 공간 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심리코칭’은 색채 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들을 줄여 직장 맘과 대디가 더욱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본사인사

▲ 편집국 지역사회부 기자
정경우 (신안 주재)
2025년 4월 14일자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사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기관 14개사가 접수했다.

스테이지는 광주역 인근에 총 공사비 35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연면적 8950㎡)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창업기업 전용 사무공간 41개실, 투자전문기관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기관 전용 공간 5개실 등으로 구성됐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

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 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지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매월 투자 웰링턴을 개최해 입주기업이 실질적 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 3개사를 선정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공동 협업모델 발굴과 기술실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글로벌 현지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복합하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취임식

지난 11일 오전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안재풍 지회장 취임식’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를 AI·문화·모빌리티 허브로”…4대 미래비전 발표

안도걸, 포럼 만민공동회 출범식 주제 발제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으며,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를 글로벌 AI에너지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초거대 AI 집적클러스터 조성,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대선 공약을 수립하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만민공동회 출범식’에서 주제 발제를 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대선 공약을 수립하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만민공동회 출범식’에서 주제 발제를 했다.

안 의원은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글로벌 창작·공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분원 유치, ACC·양립동·무등산을 잇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전략으로는 서해안 KTX 등 초광역 교통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반 AI 클러스터 구축,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서남권 국제관문공항 조성을 제시했다.

/김도기 기자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들을 줄여 직장 맘과 대디가 더욱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아이디어가 사업으로’…투자사·창업 지원기관 입주 문의도 잇따라

광주시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역 인근에 설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지(STA·G)’에 창업 기관과 지원 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지’에 창업 기업 29곳과 지원 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

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 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지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현지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복합하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리코칭’은 집안 정리 등 전문가가 공간 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심리코칭’은 색채 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역 인근에 설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지(STA·G)’에 창업 기관과 지원 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지’에 창업 기업 29곳과 지원 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

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 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지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현지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복합하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리코칭’은 집안 정리 등 전문가가 공간 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심리코칭’은 색채 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역 인근에 설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지(STA·G)’에 창업 기관과 지원 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지’에 창업 기업 29곳과 지원 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

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 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지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현지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복합하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리코칭’은 집안 정리 등 전문가가 공간 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심리코칭’은 색채 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역 인근에 설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지(STA·G)’에 창업 기관과 지원 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지’에 창업 기업 29곳과 지원 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

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 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지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현지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복합하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리코칭’은 집안 정리 등 전문가가 공간 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심리코칭’은 색채 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역 인근에 설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지(STA·G)’에 창업 기관과 지원 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지’에 창업 기업 29곳과 지원 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

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 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지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멋